

이강인, 프랑스 PSG 입단·등번호 19...“우승 갈증 크다”

2028년까지 5년 계약 이적료 311억원 추정 음바페 등 월드 스타 클럽 “팀 최대한 돕는 게 내 역할”

한국 축구의 미래로 손꼽히는 ‘막내형’ 이강인(22)이 마요르카(스페인)를 떠나 ‘프랑스 명가’ 파리 생제르맹(PSG)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PSG는 9일(한국시간) 구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마요르카와 이적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강인과 2028년까지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강인은 2018년 10월 발렌시아CF에서 1군 데뷔전을 치른 이후 라리가 무대에서 5시즌(발렌시아 3시즌·마요르카 2시즌)을 보내면서 공식전 135경기 10골(발렌시아 62경기 3골·마요르카 73경기 7골)의 기록을 남기고 프랑스 리그1에서 새로운 축구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

이강인의 이적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2200만 유로(약 311억원)로 추정된다. 이적료의 20%(약 63억원)가 이강인의 몫이라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강인은 최근 PSG를 떠나 미국프로축구 메이저 리그 사커(MLS) 인터 마이애미 입단을 앞둔 리오넬 메시의 공백을 채우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특히 PSG가 5일 스페인 출신의 ‘명장’ 루이스 엔리케 감독을 새로 선임하면서 이강인은 스페인어로 사령탑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점도 다행스럽다.

지난 6월 A매치를 앞두고 귀국하기에 앞서 PSG의 메디컬 테스트를 일찌감치 통과한 것으로 알려진 이강인은 8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조용히 프랑스로 출국했고,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입단식을 치렀다.

이강인의 추정 이적료는 손흥민(토트넘)이 2015년 8월 레버쿠젠(독일)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할 당시 기록한 3천만 유로(약 426억원)에 이어 역대 한

국인 선수 이적료 액수로는 두 번째에 해당한다.

다만 바이에른 뮌헨(독일) 이적을 앞둔 김민재의 바이아웃(최소 이적료) 금액이 5000만 유로(약 71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계약이 마무리되면 손흥민과 이강인의 이적료 기록은 한 계단씩 뒤로 밀릴 전망이다.

이강인은 PSG 홈페이지를 통해 “팀을 최대한으로 돕는 게 나의 임무”라며 “팀이 모든 경기에서 이기고 최대한 많은 우승 타이틀을 따내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입단 소감을 전했다.

PSG에서 뛰는 역대 첫 한국인 선수가 된 이강인의 등번호는 19번으로 배정됐다. 마요르카 시절 달았던 등번호를 그대로 이어갔다.

1998년 1월 사장이 스트라스부르에 입단하며 ‘프랑스 리그 1호 한국인 선수’로 이름을 올린 뒤 안정환(메스), 박주영(모나코), 황의조(보르도) 등이 프랑스 무대에서 뛰었지만 ‘최고 명문’으로 손꼽히는 PSG 입단에 입단한 것은 이강인 처음이다.

PSG는 네이마르를 비롯해 킬리안 음바페, 마르키뇨스, 파비안 루이스 등 ‘월드 클래스’ 선수들이 뛰고 있는 프랑스 최강 클럽이다.

PSG는 2011년 카타르 왕족 자본인 ‘카타르 스포츠 인베스트먼트’에 인수된 이후 지난 시즌까지 무려 9차례나 프랑스 1부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PSG는 지난 시즌까지 ‘MNM 트리오’(메시-네이마르-음바페)가 공격을 이끈 가운데 이강인이 공격 전술의 핵심 역할을 메시 대신 맡을지 팬들의 기대가 크다.

이강인은 “자타공인” 한국 축구의 미래로 손꼽힌다.

2007년 방송 예능 프로그램 ‘날아라 숲돌이’에 출연하면서 ‘축구 신동’으로 얼굴을 알린 이강인은 2011년 7월 10살의 나이로 발렌시아 유스팀에 입단한 뒤 2017년 12월 발렌시아 B팀에 합류하며 본격적으로 프로 무대에 발을 내디뎠다.

발렌시아 B팀에서 두 시즌 동안 공식전 26경기(4골)를 소화한 이강인은 2018년 10월 ‘한국 선수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장식한 이강인.

/연합뉴스

역대 최연소’인 만 17세 327일의 나이로 코파 델 레이(국왕컵)를 통해 1군에 데뷔했고, 2019년 1월 12일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라리가 데뷔전도 치렀다.

이강인은 2019년 1월 30일 등번호 16번을 받고 공식적으로 발렌시아 1군 팀에 합류하며 팀의 ‘젊은피’로 인정받았다.

특히 이강인은 2019년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2골 4도움을 작성하며 한국 축구의 준우승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회 최우수선수인 골든볼을 수상하며 자신의 가치를 끌어올렸다.

/연합뉴스

산체스, KBO 데뷔 ... ‘10K’ 삼진쇼



‘신입 호랑이’ 마리오 산체스가 KBO 신고식에서 ‘10K’의 탈삼진쇼를 펼쳤다.

KIA 타이거즈의 새 외국인 선수 산체스는 9일 KT위즈파크에서 열린 KT위즈와의 시즌 7차전 선발로 출격했다. 7회 1사까지 마운드를 책임진 산체스는 사사구 없이 4피안타(1피홈런) 10탈삼진 1실점의 호투를 선보이면서 ‘합격점’을 받았다.

앞서 KIA는 지난 6일 아도니스 메디나의 대체 외국인 선수로 베네수엘라 출신의 산체스를 영입했다.

산체스는 올 시즌 통틀어 라이온스 소속으로 대만 프로야구 리그 10경기(선발 등판 9경기)에서 62.2이닝을 소화하면서 평균자책점 1.44, 8승 1패를 기록했다.

KBO의 첫 기록은 중전안타였다.

산체스가 첫 타자 김민혁에게 1볼 2스트라이크에서 중전안타는 내줬지만 추가 진루는 허용하지 않았다. 산체스가 김상수를 3구째 슬라이더로 헛스윙 삼진을 잡았고, 포수 김태군이 김민혁의 도루를 저지하면서 투 아웃이 됐다.

산체스는 황재균도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6구 승부 끝에 슬라이더를 스트라이크존에 집어 넣으면서 만든 루킹 삼진이었다.

2회초 득점 지원이 있었다.

6번 타자 겸 지명타자로 나온 고종욱이 좌전 안타로 출루한 뒤 폭투로 2루로 향했다. 김선빈이 우익수 안치영의 좋은 수비에 막혀 아웃됐지만 김태군이 우전안타로 공세를 이었다. 이어 박찬호의 2루 땅볼 때 선행주자가 아웃되기는 했지만 3루에 있던 고종욱이 홈에 들어왔다.

박찬호의 도루로 2사 2루, 최원준의 중전적시타가 나오면서 2-0이 됐다.

2회에는 10개의 공만 필요했다. 이번에도 슬라이더를 활용해 박병호와 장성우를 연속 삼진으로 처리했고, 이호연은 초구에 2루 땅볼로 돌려세웠다.

산체스의 3번째 이닝도 삼자범퇴였다.

알포드를 5구째 좌익수 플라이, 안치영은 3구째 유격수 땅볼로 처리한 산체스는 이어 4개의 공으

KT위즈전 선발 출격 6.1이닝 5피안타 1실점 첫 등판부터 ‘합격점’

로 배정대의 방향미를 헛뜯게 하면서 이닝을 마무리했다.

4회 위기가 있었다. 이닝 시작에 앞서 삼판진이 투구시 이중모션에 관련해 언급하면서 잠시 경기 진행이 늦어졌다.

돌발 변수에도 산체스는 김민혁과 김상수를 각각 2루 땅볼과 3루 땅볼로 처리하면서 침착하게 투아웃을 만들었다. 하지만 투스트라이크의 유리한 볼카운트에서 황재균에게 좌측 선상 흐르는 2루타를 맞았다.

그리고 박병호와의 승부에 나선 산체스. 이날 경기 첫 풀카운트 승부가 전개됐지만 산체스가 헛스윙 삼진으로 이닝을 정리했다.

2-0에서 5회 시작도 삼진이었다. 6구 승부 끝에 장성우의 방향이가 헛뜯면서 7번째 탈삼진이 기록됐다.

하지만 산체스가 코뼈 골절로 이탈했다가 이날 복귀한 이호연과의 승부에 KBO 첫 실점을 남겼다.

산체스가 2볼 1스트라이크에서 던진 4구째 직구가 우측 담장을 넘어가면서 2-1이 됐다. 큰 것 한방을 맞았지만 산체스는 안치영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고 추가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다.

6회에도 배정대를 상대로 탈삼진을 추가한 산체스는 소크라테스의 좋은 수비로 김민혁을 중견수 플라이로 돌려세웠다. 산체스는 김상수에게 우전 안타는 맞았지만 황재균을 상대로 이날 경기 10번째 탈삼진을 뽑아냈다.

산체스는 7회에도 마운드에 올라 박병호를 2루 땅볼로 잡았다. 산체스는 이어 장성우에게 중전안타를 내준 뒤 6.1이닝(88구)을 책임지고 성공적으로 첫 등판을 마무리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의 새 외국인 투수 산체스가 9일 KT위즈파크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경기에서 KBO 첫 등판에 나서 공을 던지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덴마크 미트윌란 이적 임박 조규성, 메디컬 테스트 출국



한국 축구대표팀의 스트라이커 조규성(전북·사진)의 덴마크 무대 진출이 성사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었다.

9일 조규성 측에 따르면 조규성은 덴마크 미트윌란 이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이날 오전 인천국제

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전북과 미트윌란 간 합의에 이어 조규성과 미트윌란 사이의 협상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조규성은 현지에 도착하면 메디컬 테스트를 받는다.

영국 매체에 따르면 조규성의 이적료는 260만 파운드(약 43억4000만원) 수준이다.

미트윌란은 12개 팀으로 운영되는 덴마크 수페르리가의 신흥 강호다.

1999년에 창단해 3차례(2014-2015·2017-2018·2019-2020)나 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준우승도 5차례(2006-2007·2007-2008·2018-2019·2020-2021·2021-2022) 했다.

유럽 클럽대항전에도 예선을 거쳐 꾸준히 나서고 있다.

최근 유럽 무대에서 낸 가장 좋은 성적은 2020-2021시즌 예선과 플레이오프를 거쳐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까지 오른 것이다.

2022-2023시즌에는 유로파리그(UEL)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가나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단숨에 ‘스타’로 떠오른 조규성은 지난 겨울 이적시장에서 유럽 진출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에는 소속팀 전북이 이번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유럽에 진출할 것을 원했고, 조규성도 구단의 뜻을 받아들였다.

여름 이적시장을 앞두고 왓퍼드, 블랙번 등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리그) 구단과 더불어 미트윌란이 조규성에게 관심을 보였다.

조규성은 처음에는 미트윌란행을 거절했으나 박지성 전북 디렉터가 미트윌란을 추천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협상은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연합뉴스